

보도시점 2023. 8. 23.(수) 12:00 배포 2023. 8. 23.(수) 09:00

단기외채비중(단기외채/총외채), 24.3%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

2023년 2/4분기말 대외채무는 6,651억불로 전분기말(6,650억불)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다.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619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△118억불 감소하였고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5,032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119억불 증가하였다. 부문별로 구분하면 정부(+128억불) 및 중앙은행(+29억불) 외채가 증가한 반면, 은행(△144억불) 및 기타부문(비은행권·공공·민간기업, △12억불) 외채는 감소하였다.

한편, 2023년 2/4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 189억불로, 외환보유액(△46억불) 감소 등 영향으로 전분기말(1조 212억불) 대비 소폭(△23억불) 감소하였다.

이에 따라, 순대외채권(대외채권-대외채무)도 3,538억불로 전분기말(3,562억불) 대비 소폭(△24억불) 감소하였다.

단기외채가 감소하며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'23.1/4 26.1% → 2/4 24.3%), 단기외채/보유액 비율('23.1/4 40.8% → 2/4 38.4%)은 하락하는 등 외채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다.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은 단기차입이 사실상 어려웠던 외환위기 당시('98.3/4~'99.2/4)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. 단기외채/보유액 비율은 2분기 만에 40% 밑으로 하락하였다.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(LCR)도 2023년 6월말 기준 144.6%로 규제비율인 80%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.

정부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,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하에 대외채무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	책임자	과 장 이차웅 (044-215-4710)
	국제금융과	담당자	사무관 윤현곤 (gonnnn@korea.kr)

참 고

대외채무 현황 : 기말기준

구분	2020	2021	2022				2023		전기비 증감
			1/4	2/4	3/4	4/4	1/4	2/4	
총 외채(억불)	5,506	6,307	6,523	6,650	6,405	6,652	6,650	6,651	+1
단기외채(억불)	1,601	1,651	1,752	1,853	1,713	1,665	1,737	1,619	△118
장기외채(억불)	3,906	4,656	4,770	4,797	4,692	4,988	4,913	5,032	+119
단기외채/총외채(%)	29.1	26.2	26.9	27.9	26.8	25.0	26.1	24.3	△1.8
단기외채/보유액(%)	36.1	35.7	38.3	42.3	41.1	39.3	40.8	38.4	△2.4
대외채권(억불)	10,344	10,825	10,776	10,446	10,148	10,217	10,212	10,189	△23
순대외채권(억불)	4,838	4,519	4,254	3,796	3,743	3,565	3,562	3,538	△24

※ 통계 출처: 2023년 2/4분기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3.8.23.)